

몸소 보여주신 '수행의 빛' 불자 가슴속 영원히...



◇89년 해암문도회 스님들이 해암 스님의 생신날 해인사원당담 선방앞에 모였다.



◇스님이 말년에 주석한 미소굴 전경.



◇스님이 평소 앉아 경전을 읽던 법좌.

“時·空 부리며 살라” 가르침에 환희심

추도사 법전(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하늘과 땅 밖에 뿌리하고 삼천大千세계를 몸집 삼아 유유적적 오고갔고, 생사 없음을 보이신 종정스님의 모습 앞에 저희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으며, 비봉산은 험 험하고 미소굴은 본래한데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돌아 가셨다 해도 올지 못한 것이요, 설령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해도 올지

못한 일이나, 이러한 때는 무엇이냐고 대답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크게 말씀하여 해인사로 출가한 이래로 평생토록 늙지 않고 정진하는 장좌불와와 하루에 한끼만 먹는 일종식을 하면서 위법망구의 두타 고행정진을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하시어 어떤 것이 중노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수행의 빛은 종도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가시는 듯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시대 마지막 천진도인” 아쉬움

영결사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종정 해암 큰스님! 정녕, 오늘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 스님께서는 얼마 전 신년법어와 함께 모두가 본래 부처이니 용서하라 하시고, 대립과 투쟁의 마음을 쉬어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어찌 말씀하셨는데, 지켜 보시지도 않고 오늘 가시다니요! 스님의 영정 앞에 서니 순수를 잃어 가는

오늘의 세대에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남은 천진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아쉬움은 더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슬픔만으로 스님의 가슴을 어찌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스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큰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스님을 잃은 슬픔을 대신하고, 이 땅에 다시 정법을 구현하고 불국토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사바에 법체 현현 하옵소서”

조사 지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해암 종정 큰스님! 정녕 미혹한 중생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옵니까? 대중사시여! 다시금 사바세계에 법체를 현현하옵소서!

조계종의 선맥이신 큰스님께서 불교계의 기풍을 바로 세운 봉암사 결사를 이끄

시고, 대쪽같은 올곧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불교를 견져내어 오늘에 이르게 하시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큰스님의 법체는 가야산을 갔으나, 가르침은 법보산(法寶山)에 영원한 법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야산의 밝은달이 온누리를 비추듯, 해암스님의 높은법문 삼계중생 견지였네.

한광옥 새천년 민주당 총재

큰스님! 어디에 계시옵니까? 한국불교계의 밝은 빛을 비추셨던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큰스님의 일생은 신념과 원력으로 진퇴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한 수행자로 곧게 매진하는 길을 걸으시면 서도 어느 때에는 해인사주지, 원로회의 의장, 해인총림 방장, 종정 등 대외적인 일도 마

이희창 한나라당 총재

몇해 전, 스님께서는 종정으로 추대되실 때, '삼라만상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모든 일의 도가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암 큰스님! 돌이켜보건대 스님의 한결같이 깨끗한 성품과 정당한 행동은 이 시대의 정화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당신께서 염원하시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더러움을 닦

김중필 자민련 총재

해암종정께서는 스스로의 수행에 그치지 않으시고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지도하시는데에도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큰스님을 떠나 보내면서 일깨워주시는 이타정신을 깊이 되새깁니다. "안으로는 자신의 본모습을 깨치도록 철저히 수행하고, 밖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남

백창기 조계종 중흥회 회장

본래 오고 감도 없고 머문 바도 없는 것이 일생을 위법망구 환구참선하시며 청정계풍의 사자후로 광도종생하신 큰스님의 본분가 풍이라지만 미망의 안개 속을 헤매는 저희에게는 스님이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도 큼니다. 일생을 일일일식 오후불식 장좌불와 정진하신 스님의 청정수행가풍은 누란의 위기에

오익중생대원으로 다시 오셔서 원융화합 대작불사 시현하소서

다중지 않으면서 쌓아온 모든 경륜들은, 원죄와 뚜렷한 소신으로 종단사태를 해결하고 조계종의 종지를 수호하고 종단의 중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오익중생의 대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부대중이 청정한 마음을 되찾고 이 사회가 원융화합이 이루어지는 대작불사를 시현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성품과 행동은 정화수 우리 부끄러움도 불살라 주소서

아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 가시는 길에 부디 저희들의 부끄러움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시라 불살라주소시오. 그리하여 새로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모두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스님과 같은 용기와 신념으로 '법과 원력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를 세워 갈 수 있도록 불살라주시기를 서원합니다.

항상 일깨워주시는 이타의 가르침 지도층 행동으로 실천할 금언

을 도와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성이 메마르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세상에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나라 지도층이 행동으로 앞장서 실천해야 할 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모든 중생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열리기를 마음으로부터 회원합니다.

중도마음 하나로 모든 구심점 중생에겐 스님 빈자리 너무 커

처한 종단을 구하고 중생을 바로세운 당간지주이자 상채받고 흠어진 중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또한, 반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에 빠져 생사윤회하는 중생에겐 무생법인의 활로를 일러주시는 고구정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평소 강조하신 다섯가지 계행은 승속을 아우르는 깨달음의 지침서였습니다.

새해에는 원불 조성 봉안하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 원불. 아미타 영구 위패불 -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힘이 들수록 빈 가슴에 채워지는 갈등과 번민은 살아갈수록 삶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 뿐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지난날에 지어놓은 복이 이렇게도 없나 여겨집니다.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 복 지을 기회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도 작은 복이지만 부처님 법 만남을 행해 해 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하는 일이 안될 때에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도 안될 때에는 재사를 정성스리이 지내고, 기도를 하고 재사를 정성스리이 지냈는데도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보시라." 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에는 결단코 성불하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지금도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문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총만개 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보원사(寶圓寺)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영가를 극락세계로 맞이하는 영구 위패 불(1.5x1.2x 0.8)과 생(生)자의 원력과 소원을 담은 원불(願佛:법륜마크)을 조성 봉안하고자 합니다. 조상의 위패를 아미타 부처님 품안에 영구히 모시고 정성스리이 재사를 지내하고자 하는 것은 유주 무주 애혼 고훈의 모든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인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대 발원의 의미이며, 원불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원불에 자신의 발원과 원력을 싣고, 원력과 발원을 실은 원불을 모신 공덕으로 팔만 사천 불 보살님과 선신(善神)의 보호와 가피로 스스로의 하는 일이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자식이 크게 성장하는 지름길을 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추는 곳에 죽어 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부처님 그림자가 비추는 곳에 천마와 외도가 자취를 감춰 모든 재앙이 즉시 소멸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큰 공덕은 수학 공식으로도 비유할 바가 아니라" 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원불을 모시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원불을 모신 원력과 공덕으로 남은 생과 미래생에 무량보덕을 수용하며 이웃사랑으로 남겨두는 여유를 두려 합니다. 오는 새해 불국토를 장엄한 공덕으로 무량 복 받으소서.

불기2546년 원단 정안 합창

동참방법

원불 1인 1영구 위패 불 동참 발원금(일시불 - 200만원, 100만원씩 - 2회, 20만원씩 - 10회)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확대 불사 동참 10만원 * 농 협 227050-51-180421 강보원(보원사) 경기도 가평군 삼탄 태봉 2리 426-1 전화 031-585-4897, 011-703-0408

대한불교 조계종 보원사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 양성을 위한

출강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학인으로 인연맺어 일체 선근을 증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 교수합니다.

본 대학에서는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①출강반 ②통신반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의식)
 6. 교육장소: ① 서울 본 대학 ② 부산 학습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지동 110-1번지 (건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천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